

전남 서남권 섬·해양 관광 '뜨다'

신안 천사대교·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 영향 관광객 급증

연말 영광 칠산대교 완공...연계 관광 활기 시너지효과 기대

목포해상케이블카가 6일 개통되고, 신안 천사대교, 영광 칠산대교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속속 확충되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전남 서남권 관광이 살아나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여수·순천 등에 연간 2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는 등 동부권에 편중되면서 목포·신안 등 서부권을 찾는 방문객은 동부권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등 구도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목포 슬로시티가입, 제1회

'섬의 날' 행사 개최, 목포해상케이블카, 신안 천사대교 개통 등을 계기로 섬과 해양관광이 부각되면서 서남권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4월 개통된 '천사대교'는 평일 6000~7000대, 주말 1만1000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등 지난달 30일 기준 개통 148일 만에 141만대의 통행량을 보였다.

안태, 안좌, 팔금, 자은도 등이 천사대교로 연결되면서 섬관광 활성화로 연간 200만 명을 밀었던 관광객이 3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광객이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목포도 해상케이블카 개통을 계기로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8년 전국 주요 관광지별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갯바위보행교 42만 명, 춤추는 바다분수 40만 명, 자연사 박물관 36만 명이 찾는 등 목포관광객은 2017년 에 비해 50%나 증가했다.

목포시가 자체 집계한 올해 상반기 관광객 통계를 보면 근대역사관이 9만2645명이 찾아 지난해보다 49% 증가한 것을 비롯, 김대중 노

벨평화상 기념관 16만4583명(64% ↑), 목포자연사박물관 21만5109명(82% ↑), 해양수산박물관 24만4942명(41% ↑)으로 늘었다.

또 갯바위보행교 16만9091명(124% ↑), 유달산 둘레길 18만5986명(101% ↑), 어린이바다과학관 7만5082명(131% ↑), 바다분수 27만6623명(45% ↑)으로 방문객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은 목포시의 '맛의 도시' 선포, '슬로시티 가입' 등 관광마케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다 신안 천사대교를 찾는 방문객들이 숙박·음식점 등을 찾아 목포로 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목포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면 연간 130만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보여 올 연말이면 관광객이 7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도 영광 향화도와 무안군 도리포를 잇는 국도 77호선 '칠산대교'가 오는 12월 개통되면 이동 거리는 50km에서 2km로, 이동 시간은 1시간이 단축돼 목포·신안 연계 관광이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는 근대역사문화공간, 맛의 도시, 슬로시티 등으로 충분한 관광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해상케이블카가 개통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며 "숙박시설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리조트, 호텔 컨벤션, 해양레포츠 단지 등 수용태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진도 등 인근 시·군과 협력하면서 '100만 관광객 시대' 서남권 관광 거점으로 자리잡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구, 추석 맞아 자원순환해설사 퍼포먼스

광주 동구가 추석을 앞두고, 지난 4일 총장동 일원에서 자원순환해설사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배출 홍보 퍼포먼스 캠페인'을 펼쳤다.

민·관협치를 통한 자원순환도시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원순환해설사' 양성사업은 주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요령 홍보, 1회용품 줄이기, 쓰레기배출 원인조사 등 주민과 밀착해 홍보와 교육, 계도활동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서 자원순환해설사들은 추석명절 대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홍보와 더불어 본인들이 자체 제작한 자원순환 로고송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서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점검

광주 서구는 3일과 4일 이틀간 학교와 학원, 유치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기울 개학을 맞아 어린이의 이용이 많은 학교, 학원 및 유치원 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아이들의 먹거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이번 점검에서는 담배 형태 등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판매 여부, 튀김기름 사용업소 산가 측정,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남구, 초등생 비만 예방 건강 돌봄 놀이터 운영

광주 남구는 초등학생 비만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4곳과 지역 아동센터 1곳에서 '건강 돌봄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종 놀이와 신체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4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관내 대성초교와 무학초교, 봉선초교, 장산초교 등 4곳의 초등학교에서 건강 돌봄 놀이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0일까지 매주 운영된다.

북구, 추석 연휴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 운영

광주 북구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 운영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북구는 15일까지 환경조성과 성묘객 교통 대책, 재해재난 안전사고 대책, 비상 진료 대책 등 9개 분야의 종합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국립5·18민주묘지와 영락공원에 성묘객이 많이 찾는 것으로 예상,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특별교통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명절 당일인 13일에는 민주묘지 일원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한다.

북구보건소는 12일부터 15일까지 4개소 10명으로 편성된 의료기동반이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150개소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 지정을 통해 식중독과 안전사고 등 각종 비상상황에 대처할 계획이다.

광산구, 구청·동 민원실에 안전 비상벨 설치

광주 광산구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민원실과 2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전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자체 민원실 공무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계획'은 지자체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폭행 건수가 증가하면서다.

폭행건수는 지난 2017년 92건, 2018년엔 143건이었다. 이번 비상벨은 일부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예방하고 민원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임행택 기자



전남도-시·군 상생협력간담회 개최 김경록 전남지사와 22개 시장·군수들이 3일 오전 진도군 의선면 솔비치호텔&리조트 진도에서 열린 2019 도-시·군 상생협력간담회에서 상생협력력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도와 시·군의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협의하고 전남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일본 불매운동, 알아야 이긴다”...광주서 ‘KNOW JAPAN’ 강좌

시민자유대학, 한일관계 전문가 11인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0차례

‘NO JAPAN’ 일본 불매운동에 앞서 ‘KNOW JAPAN’ 일본을 알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민자유대학은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올바른 대응을 위해 한일관계 전문가 11인과 함께 21일부터 11월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0차례에 걸쳐 ‘KNOW JAPAN’ 연속강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강좌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와 한일 경제 갈등,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 등 과거사 문제부터 한일 역사 갈등, 일본 제국주의 성립 배경과 전후 역사 인식 등 오늘의 일본을 지탱하고 있는 역사, 문화 사상을 탐구한다.

강좌는 건국대 경제학과, 연세

대 문화인류학과, 서울대 일본연구소, 전남대 철학과 교수 등 한일 관계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구성됐다.

연속강좌 마지막 주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보편 이념의 주체화: 시민, 자유, 정의’를 주제로 한 종합 토론을 진행한 후 마무리된다.

수강신청은 시민자유대학 다음

카페에서 할 수 있으며 교직원인 경우 연수로 신청할 수 있다.

시민자유대학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에 촉발된 한일관계 갈등과 함께 ‘NO JAPAN’을 외치는 시민사회 문화운동의 배경 속에서 강좌가 기획됐다”며 “강의를 통해 일본을 알고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